

한국의 언론사교육 현황과 과제

김 영 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언론학교육의 역사관련 과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사 관련 교육현황의 실체를 조사하여, 그 요인과 과제를 분석하고 언론사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언론사 관련 교과목은 1985년 학부과정에서 조사대상 학교 전체 개설 교과목의 8.2%를 차지했으나, 2001년 5.2%로 39%이상 감소했다. 2006년 6월 현재 조금 더 감소하여 전체 교과목의 4.9%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언론사 관련교과목은 앞으로도 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의 경우 1985년 11개 대학원에서 언론사 관련 교과과목의 9.5%를 차지했는데, 2006년은 17개 대학원에서 17개로 전체 전공과목의 3.2%를 차지했다. 학부과정 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이것은 사회적 수요에 더 민감한 대학원 현실과 함께 언론사 연구후속세대의 교육과 출현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말해준다. 학문의 기초인 언론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 언론학의 진정한 학문적 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서 언론사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언론사교육 내용의 보완과 함께 학회 차원에서 언론사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Key Words: 한국의 언론사 교육, 언론사교육의 현황, 언론사교육의 과제

* properk@hanmail.net

** 이 글은 2006년 6월 9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한국언론학회 언론사분과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 <한국의 언론사 연구와 교육>에서 발표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또는 여기서 확대된 언론학부나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역사 관련 과목은 1980년대 후반이후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명칭은 다소 달라도 한국언론사와 함께 세계언론사나 커뮤니케이션발달사 같은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과목이 증가하고, 실습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역사 관련 과목이 점차 감축되고 있다. 여기에 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도 많이 줄어들면서 2006년 6월 현재 한국언론사를 다루는 과목 하나만 개설하거나, 한국언론사와 세계언론사를 합한 과목 하나를 개설하거나 아예 역사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 과목에 대한 대학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거나, 없어지면서, 언론사를 전공하려는 후속연구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 관련 역사연구는 점차 그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언론학의 다른 분야 특히 방송, 영상분야와 뉴미디어 관련 분야는 사회적 수요가 많아 활발하게 연구,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론과 함께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의 역사 연구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¹⁾.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언론학교육에서 역사관련 과목의 교육현황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경향을 정리하여 언론사교육의 개선방안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론학 전체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이강수, 1973, 2001; 차배근, 1989, 1997; 정진홍, 1997; 송우천, 2001 등). 특히 2001년에는 언론학 관련 학술단체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1)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현상의 역사 연구와 교과목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언론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가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란 저널리즘현상 즉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 논평과 공론조성 활동 및 그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현상 전체의 역사적 연구와 교육을 지칭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커뮤니케이션)학 교육현장에서 대부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과목을 언론사로 부르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공동 심포지엄에서 언론학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면서, 신문방송 교육, 미디어 교육, 광고교육, 출판학교육, 온라인 저널리즘 교육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언론학 연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언론학 연구의 현재를 성찰하면서, 비판언론학, 저널리즘, 문화연구,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광고연구, 출판연구 등의 현황과 과제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언론사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사의 연구에 대해서는 1983년에 정진석에 의해 현황과 과제가 논의되었고(정진석, 1983), 1990년에 한국언론학회의 한국 언론학 연구 30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주제의 하나로 언론사 연구의 30년이 점검된 바 있다(이광재, 1990). 1990년에는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에서 언론사연구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2001년에는 제외된 것이다. 그 후 언론사연구 전반(정진석, 1993; 김민환, 1996), 신문사 연구의 방법론과 대안모색(정진석, 1999), 신문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이광재, 1999), 커뮤니케이션사의 연구동향(김영희, 2005)과 연구방법(이상길, 2005) 등이 분석, 검토되었다. 이와 같이 언론사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1983년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꾸준히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따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언론학 교육 전반을 다루면서 언론사 교육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한국언론학회의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언론사분과의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이 문제가 공동 토론되었다²⁾. 언론사분과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공동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공동토론은 언론사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언론사 교육의 위기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그 후 실질적인 대안제시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 글은 먼저 지금까지 언론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 관련학과와 언론역사 관련 교과목의 개설 상황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된 관련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전반적인 경향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분석하

2) 당시 언론사분과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한국의 언론학교육에서 언론사교육 현황과 과제”였고, 필자가 발제하였다.

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언론사교육의 과제와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사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언론사 교육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6년 이전의 언론사교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언론학교육에서 언론사 관련 과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교육되었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언론사 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전에 어떻게 교육되어 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론사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그 추이만을 간단히 살펴보하고자 한다.

차배근(1987)의 1985년 12월 현재 전국의 21개 언론학 관련학과 가운데 20개 대학에 대한 전공과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 1> 과 같이 학부과정의 경우 전체 564과목 중 언론사 관련 과목은 46개 과목으로 전체 개설 과목의 8.2%를 차지했다(차배근, 1987, 72~76쪽). 즉 당시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국언론사와 세계매스컴(발달)사가 개설되어 교육되었다. 세계매스컴사는 교과과목 명칭으로 서양(구미)매스컴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에 상대되는 동양 매스컴사가 개설된 학교는 없었다. 또한 언론사상사 과목도 10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중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개론(커뮤니케이션 개론 등 포함), 이론, 방법론 등이 200개 과목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5.4%를 차지했고, 매스컴 각론 중 신문원론, 기사작성법 등 신문과 관련된 각론이 20.0%, 방송이 11.2%, 광고, PR이 8.7%를 차지한 데 이은 것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 관련 6.9%, 언론법제 관련 4.1%보다 큰 비중이었다.

<표 1> 1985년 학부과정 언론사 관련과목 개설 현황

과목명	과목구분			학년				전체
	교양	전필	전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국언론사	-	9	8	1	11	5	-	17
세계매스컴사	2	4	11	2	10	3	2	17
서양매스컴사	-	-	2	-	-	1	1	2
언론사상사	-	1	9	-	1	2	7	10
전체	2	14	30	3	22	11	10	46

출처 : 차배근(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74쪽.

한편 당시 대학원 과정에서의 역사관련 과목은 11개 대학의 대학원과정에 <표 2>와 같이 28개 과목이 개설되어 294개 전체 개설 과목 가운데 9.5%를 차지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방법론 관련 과목(28.9%), 정치커뮤니케이션, 여론과 선전, 영상커뮤니케이션 등 이론 각론과목(21.8%), 신문, 방송, 광고 등 미디어 각론(18%), 국제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13.6%)에 이어 5위의 비중이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법제 및 통제 관련 과목들(8.2%)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1985년 말 현재 언론사 관련 과목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개설되어 교육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언론사 관련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당시에 한국언론사의 경우 교육대상시기는 주로 근대 신문 출현전후에서 해방 전후 시기까지이고, 다룬 내용은 언론정책, 언론통제와 언론투쟁, 언론법과 제도의 역사적 추이를 주로 다룬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1985년 대학원과정 언론사 관련과목 개설 현황

과목명	석사		석.박 공통		박사		전체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한국커뮤니케이션사	-	2	-	2	-	2	6
동양커뮤니케이션사	-	-	-	1	-	1	2
서양커뮤니케이션사	-	1	-	1	-	1	3
세계커뮤니케이션사	2	3	1	2	-	1	9
커뮤니케이션사상사	1	3	1	2	-	1	8
전체	3	9	2	8	-	6	28

출처 : 차배근(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77쪽.

그 이후 2001년 한국언론학회에서 조사한 『언론학교과목 현황자료집』에 의하면 <표 3> 과 같이 학부 과정의 언론사/사상사 배정 교과목은 조사된 언론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59개 대학에서 평균 1.54개로 편성되어 있어 비중이 매우 적었다(광고홍보학 관련학과 제외). 두 과목 개설된 학교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으나, 한 과목만 개설된 학교도 28.8%였다. 주목되

는 것은 언론사 관련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11개 대학으로 18.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1985년 언론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 언론사와 세계 언론사(커뮤니케이션발달사) 두 과목이 개설되었고, 언론사상사를 가르치는 학교도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16년이 지나면서 언론사 관련 과목이 대폭 축소 내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3〉 2001년 학부과정 언론사 관련 과목 편성 현황

개설과목수	없음	1개	2개	3개	4개	전체과목수	학교당 평균과목수
해당학과수	11 (18.6%)	17 (28.8%)	20 (33.9%)	10 (16.9%)	1 (1.7%)	91 (100%)	1.54

출처 : 한국언론학회편(2001). 『언론학교과목 현황자료집』, 44쪽에서 재구성.

또한 『언론학교과목 현황자료집』에서 조사된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관련 전공교과목 917개와 방송과 뉴미디어 전공과목 456개를 합한 1,373개 전공교과목에서 언론사 관련 과목 68개와 방송·영상역사 관련 과목 3개를 합하면 71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언론학교과목 현황자료집』, 37 및 61쪽). 그런데 커리큘럼에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어도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조금 더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2001년 현재 실제 개설된 언론사 관련 교과목은 전체 개설 교과목의 5%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85년 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전체 개설 교과목의 8.2%를 차지했으나, 2001년 현재는 5%이하로 39%이상 감소한 것이다. 16년이 지나면서 매우 급속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한국언론학회의 교과과정 조사는 학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대학원 과정은 조사되지 않았다.

3. 언론사교육의 현재

그렇다면 2006년 6월 현재 한국의 언론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는가?³⁾ 이를 위해 언론사 관련 교

3) 그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4월부터 2006년 5월 사이에 언론학 관련 학과(광고홍보학과 제외)가 개설된 전국의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1차로 확인하고, 그 가운

과목이 어떻게 개설되어 교육되는지 전국 33개 학과(부)를 조사했다. 자료 수집대상 기간은 격년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고려하여 2004년 2학기에서 2006년 1학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강의시간표나 개설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므로 이를 활용했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편성교과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⁴⁾.

1) 학부과정의 교육 현황

조사된 전국 언론학 관련 33개 학과(부)에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수는 838개 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언론의 역사 관련 교과목 수는 41개 과목으로 전체 교과목의 4.9%를 차지했다. 2001년 5.2%에 비해 조금 더 감소한 것이다. <표 4> 는 2006년 이전과 2006년 현재의 언론사 관련 교과목 개설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⁵⁾. 20여년이 지나면서 언론사에 관련 교과목이 매우 빠르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부 언론사 관련 교과목 개설

연 도	전체개설교과목	언론사관련교과목	언론사교과 비중
1985	564	46	8.2%
2001	1373	71	5.2%
2006	838	41	4.9%

데 필요한 경우는 각 대학 관련학과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조사했다. 조사 대상 학과 선정은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대학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개설된 교과목을 조사하기위해 2005년 2학기와 2006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개설 교과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일부 학교는 수강편람이나 학과 홈페이지에 소개한 개설 교과목을 조사했다.

- 4) 그런 한계가 있지만 본 분석내용은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언론학 관련학과(부)의 언론사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5) 1985년 20개 대학, 2001년은 59개 대학, 2006년은 33개 대학의 개설교과목에 대한 언론사 관련 과목 비중이다.

또한 다음 <표 5> 에서 보듯, 2006년 6월 현재 언론사 관련 과목은 2001년 평균 1.54과목보다 감소한 1.27과목이었다. 그러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어도 실제로는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개설된 언론 역사 관련 교과목의 비중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2006년 1학기 현재 전국의 언론학 관련 학과(부)는 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평균 1과목 정도 개설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2006년 학부과정 언론사 관련과목 개설

개설과목수	없음	1개	2개	3개	전체과목수	학교당 평균과목수
해당학과수	6 (18.2%)	14 (42.4%)	11 (33.3%)	2 (6.1%)	42 (100%)	1.27

2001년도 조사에서는 언론역사 관련 교과목을 4개 편성한 학교가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없었고, 3개 개설한 학교 수도 2001년 16.9%에서 6.1%로 많이 감소했다⁶⁾. 2001년의 경우 2개 개설한 학교가 가장 많아 33.9%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대상 학교의 경우는 1개 개설된 학과(부)가 가장 많아 42.4%였고, 2개 개설한 학과는 33.3%를 차지했다. 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의 비중은 2001년과 거의 비슷했다. 이와 같이 2001년 이후에도 언론사 관련 교과목은 조금씩 더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학과에 대한 직접 전화조사에서도 최근에 교과과정을 개편한 여러 대학에서 언론사 관련 교과목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학부과정에 개설되었던 한국언론사와 세계언론사 두 과목이 2005년도 교과과정 개편에서 언론사라는 명칭의 한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대전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경우는 2006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05년도까지 두 과목 개설되었던 언론사 관련 과목이 2006년도부터 모두 폐지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언론사 관련교과목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 2001년의 경우는 전국의 59개 학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본 조사는 33개 학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표 6>은 조사된 언론사 관련 교과목 이름과 설치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언론사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가장 많았고, 언론사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밖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명칭의 교과목들이 있었는데, 미디어테크놀로지의 역사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교과목도 있었다. 언론사상사의 경우는 3개학과(부)에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외에 언론사상,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철학, 커뮤니케이션과 사상, 커뮤니케이션 고전읽기 등의 교과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루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본 조사에서는 제외했다⁷⁾. 대부분의 과목이 전공 선택 형태였고, 2학년에 개설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언론사의 경우 2개 학과가, 언론사의 경우 1개 학과가 전공필수 과목이었다⁸⁾. 언론사과목을 전공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과 교수진들이 역사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문대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상사는 4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론학 관련 학과(부)에서 영화사를 실제 개설한 경우는 한 학과로 조사되었다.

2) 대학원 교육 현황

대학원 과정이 조사된 학과는 모두 17개였다(명단은 부록참조). 이 가운데 석사과정만 개설된 학교는 두 학교이고, 나머지는 박사과정도 개설되었다. 17개 대학원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 수는 모두 537개 과목이었는데, 이 가운데 언론사 관련 과목은 17개로 전체 전공과목의 3.2%를 차지했다. 학부과정의 언론사 과목 비중 4.9%보다도 더 낮은 실정인 것이다.

7) 2001년 『언론학교과목 현황자료집』에서는 이러한 교과목들도 모두 언론사/사상사 범주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언론사/사상사 관련 교과목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8)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학교는 한국언론사는 부산대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였고, 언론사는 수원대 언론정보학과였다.

〈표 6〉 2006년 학부과정 언론사 관련 교과목 이름과 설치상황

교과목이름	교과목 구분				학년 구분					전체
	기(공)전	심화	전선	전필	전학년	1	2	3	4	
한국언론사	2	1	9	2	2	3	7	2**		14
언론사	2		4	1	1		3	3		7
언론의역사			2			1	1			2
언론역사의 이해			1				1			1
언론발달사			2				2			2
언론문화사			1				1			1
세계언론사			2		1			1		2
세계커뮤니케이션사			1						1	1
커뮤니케이션사		1	2				3			3
미디어 발달사	1		1				2			2
매체발달사	1					1***				1
언론사상사	1		3						4	4
미디어테크놀로지 의 역사			1					1		1
영화사	1						1			1
전 체	8	2	29	3	4	5	21	7	5	42

* 기(공)전은 기초전공과 공통전공 또는 전공 상태의 구분이 없는 경우, 심화는 전공심화, 전선은 전공선택, 전필은 전공필수를 말함.

** 한 학교는 고학년으로 되어 있음.

*** 저학년으로 되어있음.

〈표 7〉에서 보듯이 1985년 11개 대학원에서 언론사관련 교과목이 28개 개설되어 전체 개설교과목의 9.5%를 차지했던 데 비하면 20여년이 지나면서 과목수도 대폭 줄고, 전체 개설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런 수치는 대학원 졸업이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사회적 수요에 더 민감한 대학원 현실을 말해준다.

〈표 7〉 대학원 언론사 관련 교과목 개설 추이

연 도	전체개설교과목	언론사관련교과목	언론사교과 비중
1985	294	28	9.5%
2006	537	17	3.2%

조사된 대학원의 언론사 관련 과목 개설현황은 〈표 8〉과 같이 개설 과목 수는 모두 17개로 두 과목 개설된 학교가 6학교로 35.3%, 1과목 개설 학교가 29.4%였고,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6개 학교로 18.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대학원에 개설된 언론사관련 과목은 평균 1과목이었다. 편성교과목에는 역사관련 과목수가 5개가 편성되어 있으나, 1과목만 개설된 경우, 4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나 두 과목만 개설된 경우 또는 전혀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전화조사 결과 일부 대학원의 경우 입학생수가 적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설하지 않거나, 몇 년에 한번 정도 개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지는 대학원과정에서 언론사교육은 더욱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언론사 연구후속세대의 교육과 출현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육이 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관련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 출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표 8〉 2006년 대학원과정 언론사 관련 과목 개설 현황

개설과목수				전체과목수	학교당 평균과목수
	없음	1개	2개		
해당학과수	6 (35.3%)	5 (29.4%)	6 (35.3%)	17 (100%)	1

다음 〈표 9〉는 조사된 대학원 가운데 언론사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원의 교과목 이름이다. 전체 교과목 17개 가운데 한국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10개였고, 세계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2개, 동양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하나, 언론사상사 관련 과목이 하나였다. 언론사연구방법론 관련 교과목은 3개 있었다.

이와 같이 대학원에 개설된 언론사 교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언론사였고, 역사방법론 과목이나 다른 나라의 언론 역사를 다루는 교과목은 매우 드물었다.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은 대부분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표 9〉 대학원 언론사 관련 과목이름

교과목 이름	개설대학원수
한국언론사연구	5
한국언론사	3
한국커뮤니케이션사	1
한국언론사특강	1
세계언론발달사	1
세계커뮤니케이션사	1
동양언론사연구	1
언론사상사	1
언론사연구방법론	1
언론사세미나	1
역사연구세미나	1
전체과목수	17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합해 역사관련 과목이 비교적 이상적으로 개설된 경우는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개한다면 부산대학교는 학부에서 역사 관련 과목이 두 과목 개설되었는데 한국언론사는 2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세계커뮤니케이션사는 4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과정으로는 한국언론사 세미나와 언론사연구방법세미나 두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무엇보다 학부과정의 한국언론사 과목이 전공필수라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2002년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과 함께 언론사연구방법세미나 과목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역사관련 과목이 감축되는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의 경우 정

진석 교수의 정년퇴직 이후 대학원에 역사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학부과정의 경우 현재까지 역사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과과정 개편작업이 이루어질 때 계속 개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에서 언론역사 관련 과목을 담당했던 최정호 교수의 퇴직 이후 학부와 대학원과정 모두 역사관련 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4. 언론사교육의 내용 - 강의계획서 사례검토

구체적으로 언론사교과목을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강의계획서 확인이 가능한 대학은 홈페이지에서 조사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의 강의계획서 확인방식이 소속 학생과 교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대부분은 각 대학에 직접 전화로 요청하여 강의계획서를 수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학부의 강의계획서는 22개 대학 33개 과목이었다. 다음 <표 10>은 수집된 강의계획서에 관한 정보이다.

<표 10> 수집된 강의계획서 내용

교과명	한국 언론사*	언론사	세계 언론사	언론발달사**	커뮤니케이션사 외***	언론 사상사	전체
수집량	13	6	3	3	6	2	33

* 「한국신문사」, 「한국언론의 이해」의 이름을 사용한 학교를 포함함.

** 「미디어발달사」, 「커뮤니케이션발달사」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함.

*** 「커뮤니케이션사」의 이름을 사용한 2개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적 이해」, 「미디어테크놀로지의 역사」, 「저널리즘역사」의 교과목 이름도 포함함.

여기서 한국언론사는 우리나라의 언론현상의 역사를 다룬 교과목이고, 세계 언론사와 언론(미디어)발달사는 서구의 언론과 미디어발달과정을 다룬 교과목이었다. 그러나 언론사와 커뮤니케이션사의 경우는 학교마다 강의대상이 다소 달랐다. 언론사의 경우 한국의 언론현상의 역사를 다룬 경우가 3학교, 한국과 서구 언론현상의 역사를 한 과목에 함께 다룬 경우가 2학교, 서구 언론현상의

역사를 다룬 경우가 1학교였다. 커뮤니케이션사의 경우는 한국과 세계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를 함께 다룬 경우가 3학교, 세계사를 다룬 경우가 2학교였다. 이와 같이 언론사 또는 커뮤니케이션사의 교과목 이름으로 한국 언론사와 세계언론사를 함께 다루는 경우는 이전에 두 과목이었던 것이 한 과목으로 축소, 통합되면서 한국과 세계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 학기에 한국의 언론역사만을 다루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세계현상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다루어야 하므로, 수업내용이 부실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언론사나 관련 분야가 전공인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23개 과목이었고,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사례가 10개 과목이었다.

한국 언론현상의 역사를 다룬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강의 대상 시기는 대부분 근대 신문이 등장한 개화기이전의 전근대신문 현상에서 1980년대, 90년대 전반까지를 포함했다. 대체로 상당히 광범한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한 과목은 전근대시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고, 한 과목은 일제시기까지의 언론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이후 현대시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강의대상 분야는 대부분 신문과 방송현상의 정책, 언론통제와 투쟁, 산업적 측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의계획서는 광고, 대중문화, 미디어 수용현상과 수용자, 영화 등을 포함해 강의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그 사례는 매우 적었다. 강의방법은 기본적으로 교수의 강의 중심에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일부 포함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동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었다.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물은 하나 제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일부 대학은 두 가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제물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과제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과제1 현대이전 언론사료 탐구

과제2 자기 고유의 언론사 시대구분

사례(2)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언론사』 개론서에서 목차를 뽑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보고, 각 개론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기 나름의 참신한 목차를 구성해 볼 것

사례(3) 역사구분에 따른 한 시대 또는 한 언론에 관한 역사를 작성하여 발표 및 제출

사례(4) 한국언론사에 관한 모든 것

사례(5) 과제1 우리나라 주요 언론인의 언론활동과 언론관 분석, 평가 및 발표

과제2 각 시기의 주목되는 언론현상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주제는 별도 소개)

성적평가 방법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의 두 차례 시험성적이 각각 25~40%, 과제물이 20~40%, 출석과 수업참여도가 10~2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강의교재로는 김민환의 『한국언론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김민남 등의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강준만의 『권력변환 : 한국언론117년사』도 일부 사용되었고, 김남석 등의 『한국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정진석의 『한국언론사』, 최준의 『한국신문사』, 채백의 『신문』, 리용필의 『조선신문 100년사』 등은 교재 또는 참고문헌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 관련 논문을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채택된 강의교재로 보면 김민환의 『한국언론사』는 한국언론사 교과목 내용의 표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언론현상의 역사를 다룬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가운데 비교적 여러 대학 강의계획서의 한 전형으로 생각되는 강의계획서와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는 독특한 내용과 방법의 두 대학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대상 시기와 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사 수업계획서

순천향대학교의 한국언론사 수업계획서는 수집된 강의계획서 가운데 비교적 여러 대학이 비슷한 형태였다는 점에서 2006년 1학기 현재 한국언론사 교과목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의 한국언론사는 수강대상 학년이 2학년이었다. 수업의 목표는 “한국 언론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언론문화와 제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장차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수강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흐름을 파악해, 장차 우리 언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수업 진행방법은 교과서 및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강의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은 김민남 외 4인의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아침, 1997)였다. 과제물 제출은 없었다. 성적 평가방법은 출석 25%,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보고서 25%로 나와 있다. 그러나 과제물이 없으므로 보고서 점수는 실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학기 15주의 학습내용은, 첫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제2주에서 5주까지 원시, 고대사회의 언어생활, 고려, 조선시대의 언론문화를 다룬다. 이어 제6주에서 8주까지 개화기의 언론현상과 언론 통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와 있다. 9주에서 10주가 일제시기 언론현상, 제11주 미군정기의 언론현상, 제12주 자유당- 민주당시대의 언론현상, 제13~4주 군사독재시대의 언론과 언론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5주 김영삼 정부와 언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으로 보면 순천향대 한국언론사 수업의 대상 시기는 고대에서 현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내용은 교재내용으로 미루어 언론현상과 통제 그리고 언론 산업을 중심으로 강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영상 등의 활용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수업 진행방법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와 비교가 되는 두 학교의 강의계획서 내용이다.

2)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언론사 과목 강의계획서

수업 대상 시기는 근대신문 등장에서 현대를 포괄했다. 수업방법은 첫 시간과 12주, 13주 및 15주에 강의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토론주제는 다음과 같은 13개였다.

2주 “동아시아에서 인쇄술을 선구적으로 발전시켰는데도 왜 근대신문은 서구에서 나왔는가?”

3주 “중일 3국에서 서양의 근대 신문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4주 “개화기에 나온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주장한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5주 “개화기에 나온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지들이 주장한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6주 “일제 하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영신문이 주장한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7주 “미 군정기에 나온 공산주의, 진보주의 및 자유주의 신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9주 “1960년대 이후 대중매체가 산업적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룬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0주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1주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2주 “우리나라에서 방송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는가?”
- 13주 “우리나라에서 광고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는가?”
- 14주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는가?”
- 15주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가?”

이외에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가 있었다. 교재와 참고문헌은 김민환의 저서와 관련 문헌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대의 경우는 전통적인 강의중심의 수업방식과는 다른 철저하게 토론 중심 수업이었다. 각 시기의 특징적인 언론사적 문제나 쟁점에 대해 이루어지는 토론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이 과목 수업을 위해 충분한 연습과 사전준비를 하고 수업에 임한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대상 분야에서 한국언론사 과목의 주 대상이었던 신문, 방송분야 이외에 광고, 영화산업은 물론 대중가요와 같은 대중문화 현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수업 대상이 확대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준비가 충실하지 못하면 수업내용이 부실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3)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사 과목 강의계획서

부산대학교의 수업 대상 시기와 수업방식은 전근대시기에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언론의 변화, 발전과정을 당시의 체반 사회적 상황과 연관 지워 고찰하는 것이다. 각 시기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본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12주에서 14주는 한국언론사의 쟁점을 중심으로 모의재판 실시로 진행한다. 교재는 채백(2003)의 『신문』과 채백(2005)의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였다. 성적 평가방법은 시험(40%), 과제물(40%), 출석(20%)이었다. 이 과목에서 특이한 것은 과제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모의재판이었다. 모의재판 형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모의재판 요령

- 전체 학생을 A팀과 B팀, 재판부, 피고인, 배심원으로 구분
- A팀과 B팀이 각기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소
- 토론을 거쳐 재판부가 모의재판 주제 확정
- 주제에 따라 A팀과 B팀이 검찰과 변호인 역할을 분담
- 주제에 대해 피고인 및 증인 심문을 통해 모의재판 진행
- 심문이 끝나면 배심원들 간에 공개 토론 및 판결
- 각 파트는 조별로 운영, 조 인원은 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각 파트는 가상의 증인을 설정하여 역할 배분할 것
- 각 임무조별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찾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입장을 전개할 것
- 실제 신문지면 등 1차 자료를 1건 이상 증거 자료로 반드시 사용할 것

이 수업은 2주에서 10주까지 거의 매주 영상자료를 보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3주간은 한국언론사의 쟁점을 모의재판 형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무엇보다 영상세대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모의재판의 경우도 학생들의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대상 분야는 주로 신문과 방송분야였다. 다만 한 학기라는 제한된 시간에 언론의 역사적 현상을 전부 다루기는 어렵지만, 영상자료와 모의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역사적 현상이나 주제에 대한 교육이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원 강의계획서는 수집된 사례가 매우 적어 전체적인 경향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강의 대상 시기는 대부분 전근대시기에서 1990년대를 포괄하였다. 강의진행방법은 대부분 대상 시기에 대한 관련 연구논문을 학생들이 읽고 발제한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이었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언론정책과 언론통제,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언론 산업의 발전 과정과 같은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어 온 주제들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수용자, 대중문화, 영화, 광고 등 전반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언론사교육 쇠퇴요인과 개선 방안

이와 같이 언론사관련 교과목이 빠른 속도로 쇠퇴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은 물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언론사 교육 쇠퇴 요인과 문제

먼저 언론사 관련 교과목이 감소 또는 폐지된 주요 요인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사회가 성숙되면서 인쇄문화중심의 문화적 경향이 텔레비전시대 이래의 영상과 이미지 중심으로의 문화로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리고 과거를 다루는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경향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문화는 기본적으로 깊은 사유와 성찰,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을 발전시킨 문화라고 평가된다(Meyrowitz, 1994).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후의 서양의 학문발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인쇄문화의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Eisenstein, 1979). 동아시아에서도 인쇄문화의 보급으로 형성된 지식정보 체계아래 새로운 가치 관념과 논리체계가 확립되었다. 서양과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인쇄문화의 전형적인 한 경향이였다(김유철, 2001).

그러나 전자매체가 지배적인 매체인 사회에서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성과 직관이 중시되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과거를 참고하고, 활용할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용적인 것, 당장의 효용성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의 위기 현실이 언론학에서는 언론사 과목의 축소 및 폐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실용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역사 관련 과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런 사회분위기에 따라 언론학관련 대부분의 학과(부)에서 언론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도 중요한 요

인일 것이다. 언론사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수가 있어야 관련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언론사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의 정년퇴직이후 후임교수에 역사전공 교수가 충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언론사를 전공하는 교수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그 분들이 퇴직한 이후 후임교수에 역사전공자를 충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언론사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수가 줄어들면서 언론사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점점 어렵게 되고, 언론학교육에서 언론사 전문연구자의 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역사를 자신의 전공으로 하겠다는 연구후속세대가 나오기 어려운 악 순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수직 취업에서 언론사를 전공한 연구자가 역사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취업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언론사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의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될 뿐,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 문화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신문화사와 같은 새로운 역사접근방법에 의한 역사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학부과정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학점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거나 없다고 평가되는 언론사 관련 과목이 폐지와 축소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학의 이수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면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대폭 감소했고, 복수전공, 이중전공, 다 전공, 부전공제 등이 도입되면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수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넷째, 여기에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따른 관련 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실습이나 실기 과목이 강조된 것도 언론사 관련 교과목 감축의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뉴미디어관련 과목의 신설과 실습, 실기 과목의 강조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전국의 언론학 관련 학과에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학에 따라서는 기사작성, 신문편집, 방송제작 등의 실습, 실기과목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런 형편이므로 언론사 교육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된 것이다.

다섯째, 언론사 교육 내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세대 학생들의 관심이나 취향을 고려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내용 이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고, 교재내용을 다양하게 보완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초래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2006년 현재 한국언론사 교과목의 경우 강의내용과 방법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방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개선 필요성을 말해준다.

2) 언론사 교육 개선방안

대학에서 점차 축소 내지 폐지해도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수강신청의 기준을 실용성에 두고 있는 학생들도 언론사라는 교과목을 적극 수강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의 언론사교육에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 정책적 차원을 고려하여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언론사교육 현실의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 한국언론사 교과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언론사라는 교과목 명칭과 교육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란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체를 포괄한다기보다는 저널리즘현상 즉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 논평과 공론조성 활동 및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교과 내용을 저널리즘현상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기존의 한국언론사라는 명칭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 내용이 저널리즘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도 교과목으로 언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저널리즘 중심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 학생들의 기피를 자초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방송, 영상, 뉴미디어, 광고, 홍보 등에 관심이 많은데 교과목 이름 자체가 신문이나 저널리즘을 주로 다루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한국언론사라는 명칭이외에 예를 들면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의 주요 구성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매스 커뮤니케이션사나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한국미디어사회문화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Briggs & Burke, 2002; Crowley & Heyer eds., 2007 참조). 최근 간행된 강준만(2007)의 『한국 대중매체사』라는 서적이름과 같은 강의 명칭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언론사의 교과 내용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것은 방금 지적한 교과목 명칭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강의내용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내용이외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언론사 강의는 언론정책, 언론법과 언론 통제, 언론의 투쟁이나 이념적 문제, 그리고 언론 산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내용은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 군부독재체제아래 정치적, 법적 통제가 언론 또는 미디어의 성격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자연스런 관심사였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언론기업이 본격적으로 대기업화하면서 산업적 측면의 분석이 활발해져 언론 산업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해진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이외에 한국사회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주 또는 16주로 개설되는 한 학기 동안 상당히 광범한 기간을 다루어야 하므로 강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데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다양한 주제나 시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축적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강의 교재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강의계획서에서 시도되는 교과내용이 시사하듯이 영상세대 학생들의 관심이나 취향을 고려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내용 이외에 새로운 관점과 내용으로 한국언론사의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매체의 보급이 대중화하면서 나타난 커뮤니케이션현상과 대중문화양상 등 미디어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앞에서 소개한 강의계획서에서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언론의 역사를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과 같이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상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수방법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의 <역사스페셜>이나 <방송 80년 기념 프로그램> 등과 같이 방송사에서 제작한 고품위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 방송, 광고 등 각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원로들을 인터뷰나 특강 형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이 교과 내용의 강조점을 다양화하여 이에 맞는 표준화된 공동 교재의 개발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수가 매

우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교재개발이 쉽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동 작업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교재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 언론사교육의 의의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

과연 언론학교육에서 언론사 관련과목은 가르칠 가치가 적거나 없는가? 역사과목은 실용성이 없는 과목인가? 이것은 언론학(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언론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진정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언론사과목의 축소와 폐지현상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체 이수 학점이 줄어들면서 이수전공과목 수의 감소, 1990년대 이후 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뉴미디어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의 신설 또는 증가와 실기, 실습과목이 강조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공의 특성상 새로운 매체 환경의 이해를 위한 교과목과 실기, 실습 과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과목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사 과목이 가르칠 가치가 없는 감축의 우선대상 교과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교과목수에서 모든 대학이 언론사관련 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연구중심 대학이라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언론(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과를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안목과 관점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버스톤(Burston)은 역사교육의 가치를 첫째, 현재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선영 외3인, 2001, 34~35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역사교육의 가치는 언론사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교육은 시간, 공간, 제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언론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재의 언론현상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관점과 통찰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사상과 철학의 이해의 필요성을 설명한 알철(Altschull, 1990/1993)의 논리를 원용한다면 언론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 유희를 하려는 한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미디어 구조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실용적인 과제인 것이다.

언론학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미국의 논의는 언론사교육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실무와 이론분야의 조정, 인문학 교육의 비중 등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의 필요성이 항상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가 미국의 저널리즘/매스 커뮤니케이션 교육협회(AEJMC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의 저널리즘/매스 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에 대한 전망 2000위원회 제안 내용이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범주의 직업들 속에서 언론적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핵심적 과목들에 집중할 것"을 제의하면서 "핵심적 과목들은 '폭넓고, 포괄적이며 여러 부분에 걸치는 것'이며 역사, 법, 윤리, 현행의 관행,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역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Dickson, 2000/2002, 273쪽). 역사, 법, 윤리 등을 핵심 과목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06년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에서 "미디어산업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언론학회 미래위원회 토론 내용이다. 미디어산업 현장 책임자급 인물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물은 탄탄한 인문학적 교양을 기반으로 크리에티브하게 세상을 보고 표현해 내는 능력 즉 이야기 구성능력과 영상능력을 갖추면서 자기 분야를 개발해서 전문화해가는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한국언론학회 언론학 미래위원회, 2006). 언론사교육의 목표를 미디어현상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을 이해시켜 현재의 미디어현상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형성하고 지식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미디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데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에게 역사적 관점의 정립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위주의 제작, 실습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우리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반문하게 된다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학과(부)에서 언론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권장한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사회가 진전되고, 현재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분위기속에 1990년대 중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문의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면서 역사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문학의 위기의식 속에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⁹⁾ 그런 논의들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수준 높은 정보사회를 위해서는 역사학자를 포함한 인문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져야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다. 세계의 정보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학교육이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교육을 중시한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태진, 2001). 이것은 결국 정보사회에서 활용할 콘텐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기초학문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가볍게 여기고 현재에만 골몰하는 사회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잃게 마련이라고 한다(Sullivan, 1991, 서의식(2001), 66쪽에서 재인용).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서는 비판과 지향의 사회적 준거 틀을 제시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서의식, 2001). 오늘날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한국의 언론학이 한편으로 학문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전망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의 하나가 역사에 대한 관심부족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언론학의 진정한 학문적 정립 내지는 토착화를 위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언론현상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가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되고,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9) 개별적인 학자들의 연구와 저작도 활발했고, 공동연구도 적지 않았다. 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든다면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5).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편(1998).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정대현 외(2000). 『표현 인문학 :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 생각의 나무 등이 있다. 또한 인문사회연구회가 「2002년 인문정책연구사업」으로 인문학의 연구, 교육, 사회적 활용 등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2002년 말 현재 50개 주제의 인문정책 연구총서를 간행했다. 학회차원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0년 5월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국역사학대회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명구 (1999). 21세기 저널리즘 분야 연구방향. 『언론정보연구』, 36권. 59-62.
- 강명구·윤상길 (2005). 언론학 교육에 있어서 실무와 이론의 이분법을 넘어서 : 서울대 언론학 교육 30년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2권 1호. 55-90.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 한국 언론 117년사 : 1883~2000』.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7). 『한국 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 김남석 외 편 (2000). 『한국 언론 산업의 역사와 구조』. 연암사.
- 김민남 외 5인 (1993).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 김민환 (1996, 2002). 『한국언론사』 초판(사회비평사), 개정판(나남출판).
- 김영희 (2003). 한국의 언론학교육에서 언론사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언론사분과 라운드테이블 발제문.
- 김영희 (2005).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 연구동향과 과제: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94-125.
- 김유철 (2001). 동아시아의 지식정보 전통과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역사학회편.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57~105.
- 김한중 외 6인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 리용필 (1993). 『조선신문 100년사』. 나남.
- 문종대 (2001). 저널리즘연구 ; 수요 전환의 위기. 2001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129~148.
- 서의식 (2001). 한국사 인식과 국사교육의 목표.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31, 65~106.
- 송우천 (2001). 언론학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천. 『한국언론정보학보』, 17호. 61~183.
- 원우현·유일상 (2003). 『세계의 언론학 교육』. 삼영서관.
- 이강수 (1973). 한국신문학 교육의 문제성과 방향. 『신문학보』, 6호. 69~95.
- 이강수 (2001). 한국 언론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01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3~25.
- 이광재 (1990). 언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언론학 연구 30년 : 성찰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195~238.
- 이광재 (1999). 한국 신문의 사적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신문업과 신문연구의 과거 및 현대적 조망』. 종이신문 100년 역사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 한국언론학회. 19~42.
- 이상길 (2005).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사'를 위하여: 연구방법론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106~161.
- 이태진 (2001). 정보화시대의 한국역사학. 역사학회편.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 서울

- 대학교출판부. 1~31.
- 정선영 외 3인 (2001).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 정진석 (1983). 『한국언론사 연구』. 일조각.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나남.
- 정진석 (1993). 한국의 언론사 연구. 김동철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역음.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나남. 105~122.
- 정진석 (1999). 신문사 연구의 방법론과 대안모색. 『신문업과 신문연구의 과거 및 현대적 조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자료. 3~18.
- 정진홍 (1997). 언론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저널리즘비평』 22호, 49~52.
- 차배근 (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4권. 49~101.
- 차배근 (1989).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언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주제논문집 『언론학 교육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3~62.
- 차배근 (1997). 정보화시대에 있어 언론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저널리즘비평』 22호, 44~46.
- 채 백 (2003). 『신문』. 대원사.
- 채 백 (2005). 『한국 언론수용자운동사』. 한나래.
- 최선열 (2001).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위기. 2001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97~112.
- 최 준 (1970). 『한국신문사』. 일조각.
- 피종호·이준서 (2002). 『영상문화시대에 따른 인문학적 대응전략으로서의 이미지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11.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언론학회편 (2001). 『언론학 교과목 현황 자료집』.
-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미래위원회 (2006). 미디어 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녹취록. 『한국신문방송연감』(1987; 2005/2006).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재단.
- 허수열 (2001). 지식정보화시대의 경제사. 역사학회편.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69~203.
- Altschull, J.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 The Ideas Behind American Journalism*. 양승목 역(1993). 『현대언론사상사』. 나남.
- Briggs, A. & P. Burke (2002). *A Social History of the Media : From Gutenberg to the Internet*. Cambridge : Polity Press.
- Crowley, D. and P. Heyer eds. (2007). *Communication in History : Technology, Culture, Society* 5th ed. New York : Pearson Education, Inc.
- Dickson, Tom (2000). *Mass Media Education in Transition : Preparing for 21st Century*. 송우천 역(2002). 『전환기의 미디어 교육』. 나남출판.
- Eisenstein, Elizabeth L. (1979),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2vo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yrowitz, Joshua (1994), "Medium Theory," in Crowley, D. and D. Mitchell eds. *Communication Theory Today* (pp. 50~77).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Nerone, J. (2003). Approach to media history. In Valdivia A. N. ed., *A Companion to Media Studies* (pp. 93~114).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최초 투고일 2006. 12. 10

게재 확정일 2007. 2. 10

부 록

1. 교과목 조사 학과(부)와 대학원

1) 서울

건국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대학원, 고려대 언론학부와 대학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와 대학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숙명여대 정보방송학 전공과 대학원, 세종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 전공과 대학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한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와 대학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2) 인천과 경기도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3) 대전,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언론영상전공,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전공과 대학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4) 부산, 대구와 경상남북도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언론광고학 전공 대학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부산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영남대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5) 광주와 전라남북도, 제주도

동신대 언론광고학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2. 강의계획서 수집 대학과 교과목 이름

경남대	한국언론사
경희대	한국언론사, 커뮤니케이션사, 언론사상사
고려대	언론사
단국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적 이해
부산대	한국언론사, 세계언론사
상지대	미디어발달사
서강대	언론사, 한국언론사
서울대	한국언론사, 미디어테크놀로지의 역사
선문대	한국언론사, 세계언론사
순천향대	한국언론사
영산대	언론사
원광대	한국언론사, 세계언론사
인하대	언론사
전남대	언론사
전북대	한국언론사
조선대	저널리즘역사
중앙대	한국신문사, 언론발달사
청주대	커뮤니케이션사
충남대	한국언론사, 언론사상사
한국외국어대	언론사
한림대	한국언론사, 언론사상사
한양대	한국언론사, 커뮤니케이션발달사

3. 강의계획서 수집 대학원과 교과목 이름

경남대	한국언론사
고려대	한국언론사 연구
부산대	한국언론사 세미나, 언론사 연구방법 세미나
서울대	한국언론사 연구, 동양언론사 연구
이화여대	역사연구세미나
한양대	언론사 연구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Education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in Korea

Young-Hee Kim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history-related subjects are confronted with rapid reduction in curricula in Korea,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education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and seek the solution to its problem. As result of research the rate of history-related subjects was 8.2% of curricula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at undergraduate programs in 1985, 5.2% in 2001 which means 39% reduction, and 4.9% in 2006. At this tendency more reduction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Meanwhile, in graduate courses, the rate 9.5% in 1985, and 3.2% in 2006, less than that of undergraduate courses. It tells that graduate school is more sensitive to social demand, therefore the education for and the participation by the succeeding research generation become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as the basis of study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media in a right way and to develop real academic establish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In this respect, the policy support at the level of academic society field as well as the complement of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are highly requested.

Key Words :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istory, the present status of the education, improvement plan on the education, Korea